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4월 7일
제1995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 29)



〈토마스의 의심〉, 치마 다 코벨리아노, 런던 내셔널갤러리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나해)

제 1 독서 사도 4,32-35 | 한마음 한뜻

화답송 시편 118(117) |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 2 독서 1요한 5,1-6 |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깁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음 요한 20,19-31 |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 24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 25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 27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 28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 29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30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 31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 묵상

부활 제2주일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여드레 뒤에 일어난 일을 전함으로써 팔일 축제의 끝을 알립니다. 매우 중요한 신학적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기에, 짧게 요약하여 보겠습니다.

첫째는, ‘평화’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알레이کم’은 유대인들의 일상적 인사이지만, 특별히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라는 표현과 함께 세 번(완전함을 상징) 되풀이됨으로써,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만 주어짐을 강조합니다.

둘째는, ‘새 창조’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숨을 불어넣으며 …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십니다. 평화(샬롬)는 세상의 창조 때, 죄로 손상되기 이전 완전하고 충만하였던 상태를 말하며, ‘숨을 불어넣으시는 행위’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새로운 창조’로 이끈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 줍니다.

셋째는, ‘상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상처였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필수적으로 연결된 현실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토마스가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하기를 요구합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 그러한 토마스를 위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토마스에게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라고 하십니다.

넷째는, ‘1인칭적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토마스의 대화에는 1인칭(나, 내)과 2인칭(너, 네) 대명사가 되풀이되는데, 부활은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한 토마스처럼 1인칭적 체험으로 고백되는 사건임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입니다. 1인칭적 고백은 주변에 ‘사랑’과 ‘자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독서에서 나타나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통하여 증명됩니다.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

하느님의 자비 주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대희년인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이 매우 깊었던 폴란드 출신의 파우스티나 수녀를 시성하였다. 그 자리에서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는 2001년부터 해마다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지내고 있다.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크나큰 자비에 감사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자비 신심

성녀 파우스티나가 전하는 하느님의 자비 신심의 핵심은 믿음과 실천에 있다. 20살에 자비의 성모 수녀회에 입회한 파우스티나 성녀는 33살에 눈을 감았지만 평생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묵상하며, 이웃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을 키웠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특별한 영적 은사들을 체험하면서 알게 된 하느님 자비의 신비에 관한 내용을 일기로 기록했다.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세상에 일깨워 주는 것, ‘하느님의 자비’ 신심 실천을 통해 죄인들을 위해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것과 하느님 자비의 사도직을 시작하는 것이다.

성녀의 일기 <나의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행동과 말, 기도로 자비를 베풀 것을 당부했다. 또 하느님의 자비 상분을 만들고, 하느님의 자비 주일을 지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오후 3시에 하느님의 자비 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느님의 자비 상분에는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아래에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는 글이 새겨져 있다.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과 심장에서는 붉은 빛과 옅은 빛의 두 줄기 빛이 발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자비에서 흘러나온 두 줄기 빛은 성체성사와 교회를 상징한다.



“평화는 무기가 아니라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 때 이뤄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와 온 세상에’(Urbi et Orbi) 보내는 부활 메시지와 교황 강복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만이 인류 여정에서 전쟁과 인도주의 위기의 돌을 굴려 생명의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했다.



성 베드로 대성전 중앙 강복의 발코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날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처럼 수많은 육중한 돌들이 인류의 희망을 가로막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서는 전쟁의 돌이, 가자지구와 아이티, 미얀마의 로힝야족에게는 인도주의 위기의 돌이, 이주민과 어린이에게는 인권 침해와 인신매매라는 돌이 인류의 희망을 가로막는다. 열려 있고 텅 빈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여인들의 놀라움을 되새기는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전 강복의 발코니에서 약 6만 명의 신자들 앞에서 ‘로마와 온 세상에’(Urbi et Orbi) 보내는 부활 메시지와 교황 강복을 통해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을 막고 있는 돌들을 굴리실 수 있으며”, “세계에 만연한 전쟁으로 우리가 계속 닫고 있는” 생명의 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오직 하느님만이 죽은 한가운데서 생명의 길, 전쟁 한가운데서 평화의 길, 증오 한가운데서 화해의 길, 적대감 한가운데서 형제애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느님의 용서 없이는 그 돌을 옮길 수 없다”며, 하느님만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바티칸 뉴스 | 전문 보기 -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2-04/papa-francesco-urbi-et-orbi-pasqua-pace-guerra-ucraina-risorto.html>)

1 2024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 약정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실천하고 있는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를 약정 받습니다.

본당 할당액	본당 세대수 / 약정 세대수(비율)	현재 약정액
\$195,000	2,405 / 426 세대(18%)	\$ 194,485

-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에 함께해 주시길 청합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2 구역 봉사자 회의

- 일시 : 4월 7일(일) 오전 11:30 (A-3,4)
- 구역부 주관 본당 대청소가 교중미사 후에 있습니다.

3 “하느님의 자비 주일” 기도회

- 일시 : 4월 7일(일) 오후 3:15 (성당)
- 온갖 불의와 죽음의 문화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간절하게 하느님의 자비를 청합니다. 하느님의 자비 주일(부활 제2주일을 맞아 하느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닮아가기를 다짐하고 널리 알려 찬양하는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하느님 자비의 5단 기도, 성체 현시)
- 4월 첫 목요일 기도회는 자비 주일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 문의 : 박인옥 수산나 (703) 909-2980

4 유아세례

- 일시 : 4월 13일(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소공동체 모임의 날

- 일시 : 4월 13일(토)
-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은 공동체 기도회의 날입니다. 해당 공동체에 참석하여 신앙과 사랑을 나눕니다.

6 단체장 회의

- 일시 : 4월 14일(일) 오전 11:30 (A-1,2)

7 꼬미시움 월례 회의

- 일시 : 4월 14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8 제85차 예비신자 모집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코 16,15)

- 입교식 : 5월 5일(일) 오전 8:30 (하상관 #110)
- 등록 : 매 주일 선교부 테이블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 문의 : 김영희 모니카 (571) 338-8844
-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비자 모집에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9 연중 영화 상영(교육부 주관)

- 일시 : 4월 14일(일) 오후 12시(친교실)
- 영화 제목 : 부활(Risen)
-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십자가 기적을 새롭게 해석한 무신론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예수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부활”을 상영합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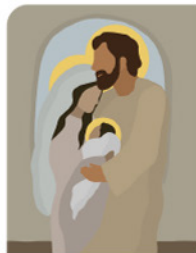
▼ 예고편 보기



10 청년 그룹 로고스로 초대합니다!

- 로고스(청년 그룹)와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나눠보아요. 오후 5시 청년 미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이연빈 켈마 (703) 732-0308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골로 3,1)



생명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알링턴 교구에서는 6월까지 '생명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바치는 기도'를 미사 전에 바칩니다.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본당 두 신학생의 직 수여식이 있습니다.
- 이호빈 바오로 : 독서직 - 4월 19일(금) 오후 4시
- 이동한 다니엘 : 시종직 - 4월 20일(토) 오전 10시
- 장소 : Mount St. Mary's University(Emmitsburg, MD)
-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

방송 미사는 더이상 주일미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편리성 때문에 방송 미사를 주일미사로 생각하는 것은 노력과 희생 없이 은총의 열매만 받으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이 방송 미사로 주일미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타의 방송 미사에 미사 지향이나 예물을 보낼 수 없습니다.

줌(zoom)으로 하는 신심활동을 금합니다.

- 본당 내 모든 신심 활동은 본당 안에서 본당 신부의 지도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중미사 예불봉헌

04/07 이번 주	센터빌 4구역
04/14 다음 주	페어팩스 1구역

성당 청소

04/07 이번 주	라우던 1, 2구역
04/14 다음 주	버크 구역

성당을 아름답게 꾸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3월 31일(주님 부활 대축일)

봉헌금	\$ 22,948.00
성 목요일 봉헌금	\$ 2,869.00
성 금요일 봉헌금	\$ 3,853.00
교무금	\$ 7,125.00
교무금(신용카드)	\$ 3,020.00
감사 헌금	\$ 960.00
온라인 봉헌	\$ 1,435.00
합계	\$ 42,210.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2024년 4월 11일(목) 오후 5:00 - 6:00
2024년 4월 12일(금) 저녁 8:00 - 9:00
2024년 4월 14일(일) 오전 6:00 - 7:00

- 주일 강론
- 다큐멘터리 사제 - [2부] '길 위에서'

교황님의 4월 기도 지향 I 여성의 역할

모든 문화 안에서 여성의 존엄과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인정받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이 종식되도록 기도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